

AGAIN 기도회 특별메세지 II.

지금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1. 깊이와 넓이의 관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의 형질을 닮은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려면 그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이 질문은 인간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보편적 질문이다. 인간의 마음 안에 '초월적 존재'를 향한 갈망이 있다. 그 초월적 존재를 '신'이라 부르기도 한다. 인간이 생각할 때 '신'이라는 존재의 특징은 분명하다. '절대적 존재'이다. 완전한 존재이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 강한 존재이다.

인간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한 신은 없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안에 있는 '신'의 존재에 대한 보편적 생각이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그 관점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다. 십계명의 제1계명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유일한 분이시다. 존재의 비교 우위 속에 있는 우월함을 넘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이유와 근원'이 되신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육'과 '영'으로 사람의 존재를 설명한다. 육의 개념과 영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사람이 육의 존재와 다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임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있다.

[에베소서 3:18-19]

18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3:18절은 '차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모두 알게 되는 일을 말한다. 바로 그 모습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모습이다.

2. 온전함, 충만함

[Ephesians 3:18-19]

18 may have power, together with all the saints, to grasp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19 and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that you may be filled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영어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결국 집중해야 할 단어는 19절의 '충만함'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충만함의 모습이란, 18절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에 기록된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아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다.

3. 죄로 깨어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위의 네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룬 존재이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깨어진다. 그 죄의 뿌리가 '욕심'이다. '야망'이다. 바로 그 모습이 '깊이'가 없는 넓이와, 높이와, 길이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들었다. 충만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즉 다른 피조물과 비교되는 인간의 가치는 '깊이'로부터 온다. 깊이가 없는 '너비, 길이, 높이'는 꺾데기에 불과하다. 그 형상이 '바벨'이다. 바벨은 '깊이'가 없는 보여지는 '형상'이다. 아무 의미 없다. 높이 올리고, 넓게 확장하고, 길이를 길게 한 바벨탑이 담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

바울의 변화와 거듭남은 '깊이'를 알게 된 것이다. 깊이가 없는 너비와, 높이와, 길이의 허무함을 알게 된 것이다. 너무 가벼운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중심이 없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내면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법과 다른 욕망을 본 것이다. 결국 그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이 추구했던 넓이, 높이, 길이의 세계관을 '배설물'이라 한 것이다.

4.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깊이'의 존재이다. 깊이는 무엇인가? 사랑이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표현할 때 '깊이'를 알 수 없다고 표현한다.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 그 사랑안에 희생, 섬김, 나눔, 봉사, 존중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안에 있는 깊이는 그래서 무게감이 있다.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은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존재이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그 사랑이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 충만했다.

5. 깊이가 없는 시대

현대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깊이'가 없는 너비와, 높이와, 길이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넓고 길고 높은데, 아무 깊이가 없다. 즉, '고민'이 없다. 깊이는 '고민'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이 없다. why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러니 마지막에 가서 허무한 것이다.

말초적 사회이다. 말초적 기쁨을 추구하는 사회에 '고민'은 없다. '생각'은 없다. 지금은 생각과 깊은 고민을 싫어하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연약함이 이것으로부터 온다. 오늘 나의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깊이가 없는 넓이가 문제인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로이다. 깊이가 없는 넓이가 문제이다. 깊이가 없는 인간의 말초적 복이 문제이다. 그 이유는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을 알되 깊이가 없는 사랑만 남는다. 말초적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핵심인 희생을 말하면 힘들어한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 십자가는 죄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고민이다. 고뇌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신다. 그 모습은 창세기에 우리를 상의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뇌가 있다. 창조자의 고뇌가 있다. 되는대로 계획 없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 우연의 일치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 이 고뇌가 바로 사랑이며 '깊이'이다.

6. 잠근 동산, 봉한 샘, 호렘산

지금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혀있다. 깊이를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 아가서 말씀을 보라.

[아가 4: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 버린 샘

신랑은 신부를 바라볼 때 위의 표현처럼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 버린 샘으로 표현한다. 무슨 말인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다. 신랑과 깊이 있는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신부이다. 오늘 우리 신앙에 다시 회복될 부분이 바로 '깊이'에 대한 것이다.

모세가 오른 호렘산은 그와 같다. 호렘산은 하나님의 고민 속에 있는 사건이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민을 담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혈기 있는 모세가 아니다. 오히려 힘의 허망함을 아는 모세의 상황이 하나님의 고민을 담아낸 것이다.

[출애굽기 3:1]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 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렘으로 갔을 때에,

혈기 왕성한 애굽 왕자의 모습이 아니다. 애굽 왕자의 힘의 허망함을 아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사람에게 호렘산의 불이 보인다. 내 생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은 어려운 때이다. 어려울 때 깊이가 만들어진다. 지금은 깊이 들어가는 때이다. 넓게 가야 할 때가 있고, 깊게 가야 할 때가 있다. 전체를 보아야 할 때가 있고, 자세한 것을 보아야 할 때가 있다. 틀을 만들 때가 있고, 작은 것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때가 있다. 넓게 만나야 할 때가 있고, 깊게 교제해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은 '깊이'의 문이 열리는 때이다.

잠근 동산, 봉한 샘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있게 여기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